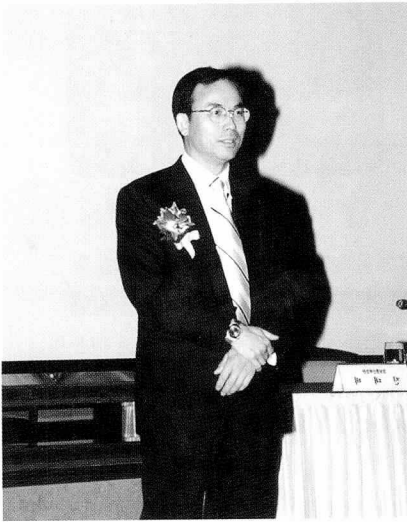


진대제 정통부 장관 초청, 제 18회 정보통신 포럼 개최



협회는 지난 4월 17일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을 초청하여 '제18회 정보통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진대제 장관은 'IT 일등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통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진장관은 또 이날 밤 프로젝트를 활용해 강연장을 걸으며 참석자에게 즉석 질문을 하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진장관은 앞으로 정보기술(IT)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업계 관계자들의 질문에 날카롭게 대답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전임 장관의 훌륭한 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통신정책의 방향을 시장에 맡길 것인지, 비대칭규제 등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한 통신업체 대표의 질문에 "민감한 얘기라 가능한 언급 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중요한 것은 시장원리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믿을 것은 자기 실력 밖에 없다"며 시장원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통신·방송은 공익성을 갖고 있어서 독점은 좋지 않다"며 "후발 사업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원리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진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이것 저것 다 하려하지 말고 가치사슬(Value Chain) 속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벤처기업 대표가 "한국의 IT인프라는 훌륭하지만 무선랜, IMT-2000, 블루투스 등 너무 복잡한 기술들이 혼재돼 있고 표준도 없어 중소기업들이 따라

가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국가가 운영시스템(OS)를 개발해야야 승산이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국제 분업시대에 내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은 밖에서 조달하고 대신 시장에 부응하는 제품을 빨리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표준과 관련해서도 진 장관은 "각 기업들이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손을 잡아 표준을 이끌어 가려 하고, 그 과정에서 시계 추 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정보통신이 공익성을 띠기 때문에 표준이 너무 혼란스러워질 경우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를 정해줄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벤처 정책에 관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중 70%가 종업원 20인 이하이며, 60%가 연간 매출 10억원 이하"라며 "우리나라 벤처기업 사장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퇴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퇴출제도(Exit Plan)를 통해 앞으로 M&A를 활성화 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쪽에서는 취업난이 심각

하다는 데 기업들은 인력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인 미스 매칭(Miss Matching)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요즘 제한된 국민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 장관은 "투자 수익률이 장치산업은 10%도 안되는데 소프트웨어산업은 62%나 된다"면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노력해 달라는 한 단체 대표의 요구에 반대 논리를 제시했다.

진 장관은 "500명의 우수 인력만 주면 10억달러 매출을 올리겠다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14만명이 매달려 있으면서 지난해 고작 6억달러 수출을 기록했다"며 "단일 업체의 관점이 아니라 산업전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컴퓨터 조립사업을 수익률이 낮다고 없애고 소프트웨어 산업만 육성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을 누가 먹여 살릴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한편 진장관은 "국내 R&D투자를 늘리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국 IT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인센티브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MS나 HP 등 다국적업체들이 한국의 내수만 보고 들어왔지 R&D를 통해 한국과 동반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없어 아쉽다"며 해외 IT업체들의 R&D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벤처창업네트워크 창립총회 개최

협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상제리제 회관 갤러리 홀에서 정보통신벤처창업 경진대회 수상자들과 함께 '벤처창업네트워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협회에서 진행한 '정보통신벤처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등 총 58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 총회에서는 (주)하이비스 김홍길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규정 승인, 운영위원(분과위원장) 선임,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중국 하북성 IT대표단 방문

협회는 지난 4월 3일 중국 하북성 IT대표단을 맞아 3층 회의실에서 양국간의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하여 논의를 가졌다.

하북성신식산업청 진국웅 청장, 하북성 신식산업청 양지위 처장, 국영 제13연구소 양국우 소장 등 10명(통역포함)으로 구성된 '하북성 IT대표단'은 협회 김춘석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4명과 함께 하북성에 대한 소개와 KAIT와 MOU를 체결하고 합작·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대련·서울 IT CEO 포럼 개최

본 협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하모니볼룸에서 중국 대련시 정부가 주최하고 대련시 정보산업국과 본 협회가 주관하여 '대



련·서울 IT CEO 포럼'을 개최했다. IT산업 종사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는 한·중 교류증진 및 협력촉진에 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수도권 협·단체 초청 ASP 보급 설명회 개최

협회에서는 지난 4월 10일 무역센터 무역클럽 51층에서 수도권 협회와 단체들을 초청하여 ASP 보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자리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부의 김준호 과장 및 협·단체 실무자, ASP 사업자 등 총 40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많은 협·단체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심양지회 협회 방문

협회는 지난 7일 협회 3층 회의실에서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심양지회 관계자들의 방문과 함께 한·중 간 무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는 협회 최명선 부회장 외 3명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심양지회 왕우경 부회장, CCPIT 연락부 왕샤오 부부장 등 4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심양시에 대한 소개와 9월에 열리는 중국 '국제장비제조업박람회' 소개 등 한국과 심양과의 관계 증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IT Forum Korea 2003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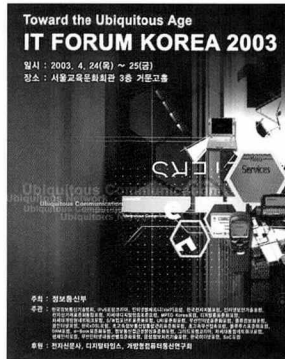
협회 음성정보처리기술포럼은 지난 4월 24일 25일 양일간 정보통신부가 주최하여 서울 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에서 'Toward the Ubiquitous Age'란 주제로 열린 'IT Forum Korea 2003'에 참가했다.

IPv6포럼 코리아, 텔레포니(VoIP)포럼, 음성정보처리기술포럼 등 총 29개 포럼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대련 IT 대표단 협회 방문

협회는 지난 4월 4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대련 IT대표단과 양국간 협조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협회 최명선 부회장, 김춘석 실장 외 3명과 대련시 신식산업국 란경위 국장, 신식산업국 탕충덕 처장, 장홍 처장 등 6명 등 총 11명이 참석, 협회 회의실에서 가진 토론에서는 대련시 IT관련 3대 계획, Digital Dalian 건설 프로젝트, 市政府 차원의 지원 및 환경 등에 관한 소개가 이어졌다. 7일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련시 주최 '고위경제인간담회'에서는 대련시 하덕인 시장,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 등 약 30명이 참석하여 본격적인 한·대련간 경제 협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2003년 정보통신 주요정책 및 사업설명회 개최

협회는 지난 4월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03년 정보통신부 주요 정책 및 IT분야 대표적 기업의 사업 계획을 소개하는 '2003년 정보통신 주요 정책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IT업계 및 관련 단체 임직원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부 주요 실국(정보화기획실, 정보통신정책국, 정보통신진흥국, 전파방송관리국) 실무총괄 과장들이 연사로 참석, 2003년 정보통신 주요 정책을 대하여 설명을 했다. 이밖에도 SK텔레콤(무선통신분야), KT(종합통신분야), 현대정보기술(SI분야), 삼성전자(제조분야) 등 IT 대표 기업들의 올 한 해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이어져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협회 임직원 워크샵 개최

협회에서는 지난 4월 26일, 27일 양일간 경상북도 문경에서 임직원 워크샵을 개최했다.

'하나되는 KAIT! 도약하는 KAIT!'란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워크샵에서는 협회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함께, 기존사업 활성화 방안, 신규사업모델 발굴 및 경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